

완도군 “해조류 우수성 소개 보답… NASA 초대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빌 넬슨 국장에 초청장 보내…5월 해양치유센터 준공식 초대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국장 빌 넬슨(Bill Nelson)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국내 기초자치단체가 세계 최고 기관의 하나인 NASA측 수장을 초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NASA가 지난 2021년 4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완도지역 양식장 사진을 올리면서 완도의 우수한 양식 환경이 세계적인 관심을 끈데 따른 감사 차원이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우철 군수가 외교부를 방문해 NASA측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NASA측에 전달할 국문과 영문 서한문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외교부 에너지과학 외교과에서 서한문을 검토 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빌 넬슨 NASA 국장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 해양치유산업의 중심기반 시설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준공에 맞춰 초청을 한다는 것이다.

빌 넬슨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해 완도군의 다양한 해조류와 친환경적인 양식현장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도군에서

NASA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완도군이 NASA 수장을 초청한 이유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NASA의 지구관망대(Earth Observatory) 사이트에서 인공위성이 포착한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 사진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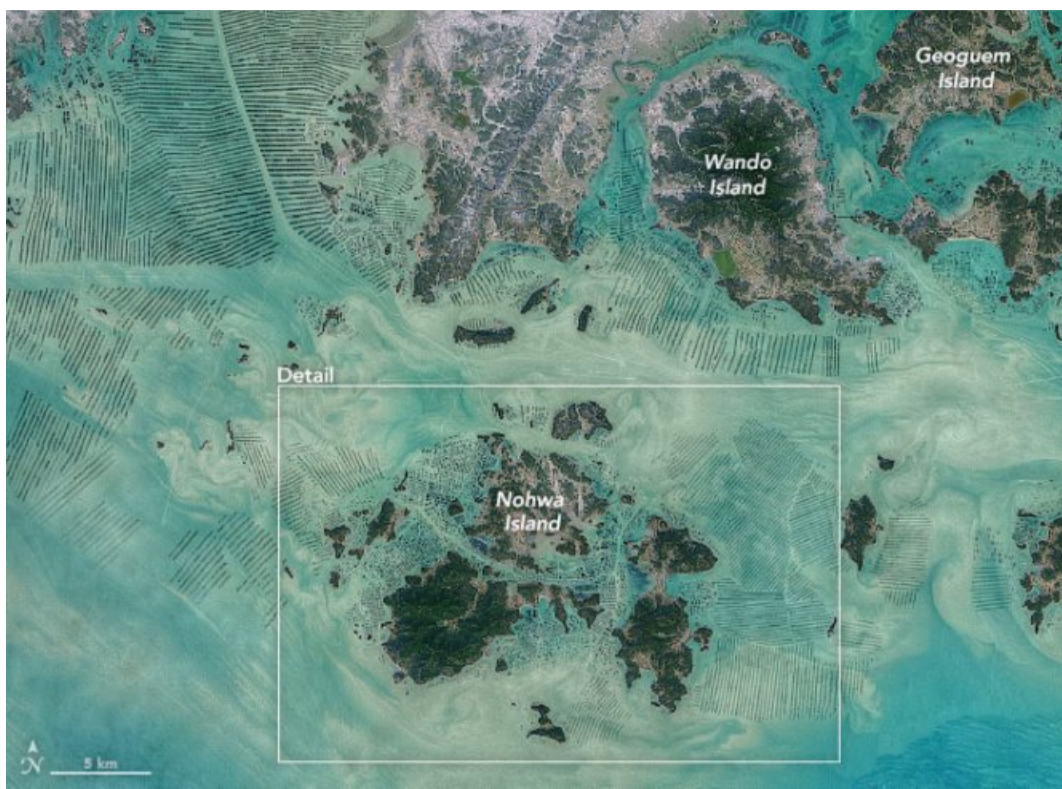
NASA가 공개한 위성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미국 NASA의 인공위성인 랜드샷 8호(Landsat 8)가 보내온 이미지(OLI·Operational Land Imager)로 완도의 아름다운 에메랄드 색 해역에 해조류 재배 흔적이 빛살 무늬처럼 빼곡히 차있다.

NASA측은 완도 노화도의 이미지를 더 자세히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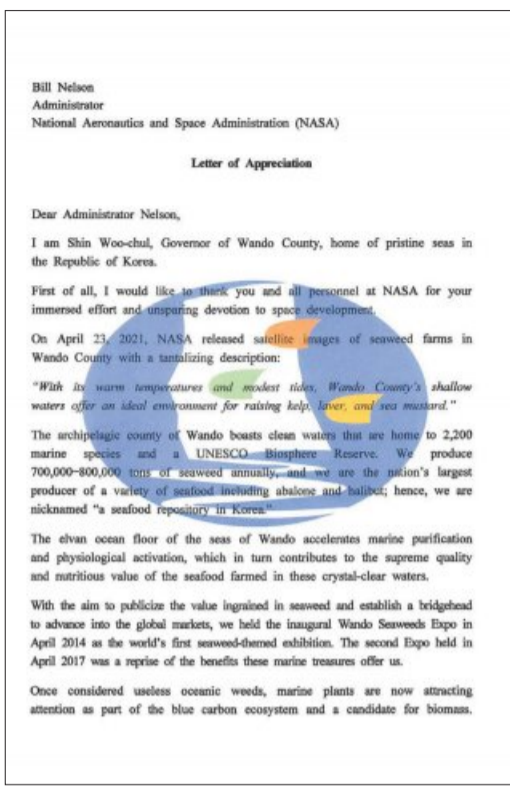
NASA는 이에 대해 에메랄드 바다색은 대부분 실제 색상이지만 데이터 특정 음영과 색조가 분리돼 물의 특징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 색이 어두울수록 바다 깊이가 깊고 밝을수록 얕다는 것이다. 완도지역의 만, 입구, 해협의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뚜렷한 흔적을 보이는 짙은 색은 강으로부터 떠내려온 퇴적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NASA측의 분석이다.

NASA는 온난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로 완도군은 수심이 얕아 다시마, 김, 미역을 양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초밥용 김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는 붉은 해초의 일종인 ‘파이로피아



NASA가 지난 2021년 4월 홈페이지에 올린 완도지역 위성사진(왼쪽)과 완도군이 외교부에 전달을 요청한 서한문.



(완도군 제공)

(Pyropia)’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고 밝혔다.

NASA는 해조류를 즐기는 한국인의 전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산모는 출산 후 빠른 회복을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을 먹고, 일반적으로 생일 음식으로 미역국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해조류 양식은 담수산 비료가 필요하지 않지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대기중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해양환경과 해조류의 우수성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군도를 이룬 완

도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바다 밑에는 맥반석과 조석이 깔려 있어 자체 영양염류가 풍부해 국내 김과 미역의 최대 생산지로 꼽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광주 한 곳서 로또 1등 3장 나왔다

모두 수동 선택...한 명이면 당첨금 70억

“로또 1등이 한 곳에서 3개가 나왔다는 소식에 좋은 기운 받으려고 나주에서 왔어요”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복권 판매소에서 한 회차에 1등이 3명이나 당첨됐다는 소식이 이 복권판매소 앞을 문전성시였다. 당첨자가 3명이나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광주·전남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붐볐다.

동행복권은 지난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11명이 산 복권 중 4개가 광주 복권판매소에서 판매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개가 광산구 한 복권판매소에서 수동으로 당첨돼 복권 구매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머지 1등 당첨자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복권판매점에서 나왔다.

광주지역 복권판매소에서 1등이 한번에 3명 배출됐던 사례는 지난해 11월 1042회차로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1편의집’ 이후 두번째다.

하지만 당시에 1등이 한 회차에 25명이 나오면서 한명당 당첨금액은 9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등이 11명뿐이어서 한명당 당첨금으로 23억여원을 받게 됐다.

수동이라도 한사람이 같은 번호로 여러 개의 복권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개의 복권 당첨자가 한명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첨자가 한사람이라면 무려 70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가져가게 된다.

1등이 3개나 당첨된 이 복권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일(54)씨는 “지난 29일 동행복권 즉 담당자로부터 업장에서 1등이 3명이나 배출됐다는 축하 연락을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면서 “이번에 당첨된 복권이 언제 사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당첨자가 1명인지 3명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20년 동안 복권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행운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사립 유치원 원장 월급이 1216만원

국립대 총장 수준...가족·친인척 무분별 채용 고임금 지급 ‘물의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족, 친·인척을 채용해 뚜렷한 기준없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치원 원장 월급이 초유치원 1006만원, 사유치원 1216만원, 카유치원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치원 원장은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또 사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으로 채용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데도 월 560만원을 줬다.

초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카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 128만원)보다 많은 월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사랑의 온도탑’ 목표 조기 달성

48억4500만원 모금 ‘100도’ 넘어

광주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2도를 가리키며 조기마감했다.

3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이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기준으로 광주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겼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액은 48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3000만원 올랐다. 29일 기준 모금액 액수는 48억 450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초·기부 모금액이 전년 대비 45%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12월 말을 기점으로 광주시민들과 지역 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모금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광주정신이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견인했고, 이를 통해 희망 2023 나눔캠페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소중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만큼 성금을 돌보이듯들의 기초생계, 의료비, 난방비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사랑의 온도탑도 지난 26일 100.8도로 조기달성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